

보육시설 급식 및 영양지도에 대한 조사

이경희^{*}, 박도영², 이인영², 홍주영³, 배상수¹.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연구소¹, 영등포보건소², B·H연구소³

핵가족화로 자녀 양육을 담당하던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져 아동이 보육시설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보육시설의 역할은 교육으로 아동의 인성교육은 물론이고, 급식을 통해 음식에 대한 식습관 및 성장발달까지 담당하는 책임자로 확대되었다. 이에 본 조사는 보육시설 급식현황과 영양지도 현황을 조사하여 보육시설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은 영등포구내 어린이집 구립 29곳과 민간 83곳으로 하였고, 조사방법은 우편설문으로 실시하였다. 회수율은 60%로 구립 26곳, 민간 34곳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응답자의 93%가 여성이었고, 40-44세, 45세 이상이 36.7%, 30%였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이 65%였다. 어린이집의 급식형태는 중식 1회와 간식 2회의 형태(86.7%)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급식에 대한 생각은 급식이 아이의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61.7%), 식사예절을 배우는 것(28.3%)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일 평균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구립이 62명, 민간이 40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세 미만 5명, 2세 8명, 3세 9명, 4세 9명, 5세 9명, 6세 6명, 7세 4명이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3-5세 아동이 가장 많았다. 급간식을 준비하는 조리종사원은 1명(76.7%)이 가장 많았고, 2명(21.7%), 3명(1.7%)이었다. 아동 1인당 1일 급식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에 11.7%였으며, 1000~2400원 범위 값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5%였으며, 급식비를 모르거나 엉뚱하게 답한 경우가 61.7%로 응답자가 1인 아동에게 해당하는 1일 급식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구립이 민간 어린이집보다 급식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p=0.006$). 식단작성은 영양사(15%)에 의해 작성되기보다 원장(50%), 유치원교사(10%), 조리원(8.3%)에 의해 작성되어지고 있으며, 식단 작성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영양의 균형(44%),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14%)이라고 응답하였다. 작성시 참고로 하고 있는 것은 월간지나 잡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90%로 가장 많았고, 짜여진 식단은 가정으로 발송(90%)하고 있었다. 급식관리시 가장 어려운 점은 예산관리(36.7%)와 식단작성(25%)이었으며, 보건소에서 영양서비스로 받고 싶은 내용 2가지를 물었을 경우, 식단제공(81%)> 아이들 영양교육(36.7%)>급식위생교육(33.3%)>유아교사영양교육(18.3%)>학부모대상 영양교육(16.7%)의 순으로 식단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55%였고, 횟수는 1회 실시한 적이 있으며, 식사예절에 대한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교육시 영양에 대한 지식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한 영양교육실시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결과 보육시설의 급식관리는 원장이나 교사가 급식업무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일에 대한 과중감은 물론이고 급식운영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교육에서도 아동에게 실시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영양교육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다양한 교육매체이용과 지식전달 내용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급식관리에 대한 정보와 영양교육관련 매체, 교육지침 등의 개발을 필요로 하며, 원장, 교사는 물론 조리원에 영양·위생교육실시를 통해 영양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